

# 국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위기소통 워크숍 “파발” (Operation PABAL) 개최

2023. 12. 12.



외교부는 미 국무부 및 에너지부와 공동주최로 12.12.(화)-14.(목) 3일간 서울에서 「국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위기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IAEA 및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등 20여개 국 90여명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핵/방사능 테러 위협에 대한 공동의 도전 과제를 확인하고, 국가별 최적 관행을 공유하는 패넬 토의와 도상훈련(TTX)을 실시하였다.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환영사를 통해 핵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AI 등 신기술로 인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환경에서 국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역량 강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총 3일의 일정으로 구성된 이번 워크숍은 ‘핵/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대중 소통’을 목표로, ▲ 유관기관 간 임무 조정, ▲ 응급의료 대응, ▲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현장 대응, ▲ 위기 사후 관리 등 핵/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각 국가의 위기대응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핵/방사능 테러 분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의 핵안보 역량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2023. 12.4-5.



외교부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이 유엔군축실 (UNODA: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군사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주제로 12.4(월)-5(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했다.

※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군축·비확산 진전 방안 모색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 매년 그 해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 논의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나카미쓰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를 포함해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군축·비확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나카미쓰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

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이번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REAIM Summit)에 앞서 그간의 논의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간 의견 교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군축·비확산 분야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갖는 이점과 위험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군사영역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및 국제규범 형성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한편,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중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2명의 학생이 청년대표로 회의에 참가하여, 포스터 전시 등을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청년의 시각을 소개했다.